

‘제로금리’ 시대...투자 심리도 ‘제로’

코로나발 금융 충격 대응...금리인하로 부동산 싹쓸이 우려도 국내 증시 매주 ‘검은 월요일’...코스피 1700선 붕괴 위험

한국 경제가 사상 첫 '0%대 금리' 영역에 들면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했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했다.

◇코로나발 '제로금리'...부동산 싹쓸이 우려도=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가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신규 분양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꺼내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진정이 급선

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자극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가 낮아져 돈이 더 많이 풀릴수록 생산적인 부문에 많이 쓰이기보다는 부동산으로만 쓸릴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금리인하 결정을 망설여왔다.

이 본부장은 "국내 경제 기초체력 회복이 안되고 잠재성장력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방만해지고 주식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여전...국내 증시 갈팡질팡=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00%포인트나 끌어내렸으나 16일 국내 주식시장은 종일 출렁이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이날 주가 급락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43조9227억원이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은 3% 넘게 폭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째 오르면서 4년여 만에 최고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으로 마감했



자료/연합인포맥스 연방뉴스

다. 지수는 전장보다 33.99포인트(1.92%) 오른 1805.43으로 출발했지만 등락을 되풀이하다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3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기관도 동반 순매도에 나서며 340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9263억원어치를 매수하며 8

거래일 연속 사들였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9.49포인트(3.72%) 내린 504.51로 장을 마쳤다. 이날 14.68포인트(2.80%) 오른 538.68로 출발해 한때 상승했으나 장 후반 들어 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18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4억원, 외국인은 14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지역본부장은 "국제 증시의 폭락으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 같은 약세장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번 주 초반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이 매일 5000억~6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외부적 불안 심리는 커질 대로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어주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며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있는 주식도 줄여야 할 판이기에 지역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주의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6.7원 오른 달러당 1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714.86 (-56.58)
- ↓ 금리(국고채 3년) 1.10 (-0.05)
- ↓ 코스닥 504.51 (-19.49)
- ↑ 환율(USD) 1226.00 (+6.70)

광주은행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인기

출시 4개월 만 3300좌 판매

안전자산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제테크 수단으로 외화적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이 출시 4개월 만에 가입 3300좌, 계약액 270만 달러(약 33억원)를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판매를 시작한 이 외화적금은 해외여행을 위한 목돈마련과 '환테크'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피라이프 외화적금'은 미국달러 기준 월 5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0.85%이지만 최고 연 1.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

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 적립 ▲환전거래 이용 실적 ▲월불입액 자동이체 적립 ▲비대면채널 신규 가입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하나투어와 제휴를 맺어 외환관련 수수료를 우대하고 현금지급(캐시백) 혜택을 준다.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지난해 말 국내 개인 보유 외화적금은 154억달러(약 18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 광산세무서·순천 광양지서 4월 3일 개청

신설되는 광주 광산세무서와 전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하고 납세서비스에 들어간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에서 분할·개청되는 광산세무서의 관할지역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광으로, 정원 115명, 5과 1실 17개팀 규모다. 순천세무서에서 분할·신설되는 광양지

서는 광양시를 관할지역으로 32명 정원으로 4팀 규모다.

박석현 청장은 "원거리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밀집 지역에 대한 촘촘한 세정지원과 복지서비스가 기대된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손소독제 배포·방역봉사

'재능기부 봉사단' 송정역 방역 '한사랑회' 소독약품 등 기탁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을 기탁하고 방역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난 12일 금호타이어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동호회 '한사랑회'는 감염예방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50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또 14일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적 봉사단체 '재능기부 봉사단'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함께 광주송정역을 방역하고, 이용객들에게 휴대용 손소독제를 배포했다.

2000년에 결성된 '한사랑회'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병원입원 불우환자, 비인가시설 등 이웃들에게 매달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단'은 전기·기계 설비분야 전문가인 사내기능강사와 현장 실무관



금호타이어 '재능기부 봉사단'은 최근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광주송정역을 방역하고, 이용객에게 손소독제를 배포했다.

리자 등 임직원 65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2016년 10월 발대 이후 지자체와 상호협약을 맺고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은 "이번 활동이 광주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공장 방역을 실시하고 지정·대리점에 위생용품 배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사무직 대상 자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인구 유출 20대 가장 많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현황 분석 전남 9000명 유출 9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남지역 순유출 인구가 9000명에 달해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도 지난해 3875명이 다른 사·도로 순유출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순이동 인구는 광주-3875명, 전남-87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광주에는 21만7130명이 전입했고 22만1005명이 다른 사·도로 빠져나갔다. 전남은 22만4483명이 전입, 23만3271명이 전출했다.

전남 순유출 인구는 2010년 -1만61명 을 기록한 뒤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 순유출 인구는 지난 2015년 -9272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령대 별로 보면 광주·전남 모두 20대 유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 한 해 광주에서는 전체 순유출 인구의 66.7%에 해당하는 2588명, 전남은 8522명(96.9%)의 20대가 유출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다른 사·도로 간 7만 1653명 가운데 절반 정도(46%·3만3024명)는 전남으로 갔다. 서울(1만727명), 경기(1만264명), 전북(4940명) 등도 주요 전출지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 총 전출자 9만6857명 가운데 광주로 간 인구가 3만7142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만5942명), 서울(1만3894명), 전북(54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도간 이동사유는 광주는 가족(34.4%)→직업(28.9%)→주택(19%), 전남지역은 직업(35.3%)→가족(29.8%)→주택(16.7%) 순으로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